



17個 室・部・所長異動

李錫胤理事長 就任후 첫人事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李錫胤)은 12월17일자로 본부 감사실장등 2실4부장을 포함 17개 실・부・관리소장급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인사는 지난 7월1일 제 2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李이사장의 첫인사인데 본부 4부장 전원을 일선관리소장과 교체한 점으로 미루어 일대 변화를 시

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 기획부장 李昌憲 ▲ 운영부장 任忠植 ▲ 관리부장 辛洪鎭 ▲ 시설부장 李高奉 ▲ 감사실장 金振用
- ▲ 비서실장 黃漢秀 ▲ 내장산 남부관리소장 宋熙徹 ▲ 북한산 서부관리소장 鄭裕熙 ▲ 지리산 남부관리소장 姜弼遠 ▲ 지리산 북부관리소장 崔元範 ▲ 가야산 관리소장 姜勝夫 ▲ 한려해상 관리소장 申炳和 ▲ 소백산 남부관리소장 金成基 ▲ 소백산 북부관리소장 金洪玟 ▲ 속리산 관리소장 李永安 ▲ 월악산 관리소장 朴萬澈 ▲ 치악산 관리소장 金春培

國立公園內 행위허가 處理指針시달

건설부서, 자연공원법시행규칙 改正코 12月6日 公布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석윤)은 지난 12.10. 각관리사무소와 관련기관에 「국립공원내 행위허가 처리지침」을 시달・통보했다. 동 처리지침은 건설부 자연30101-32317호('90.12.6)에 근거한것인데 그동안 해상공원내 자연환경지구를 비롯하여 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에서 수산물보관, 가공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등의 높이와 건폐율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국민경제생활을 돕는 차원에서 공단측의 건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중 다음사항을 개정한 것이다.

1. 제 목 : 국립공원내 행위허가 처리지침
2. 근 거 : 건설부 자연 30101-32317('90.12.6) 호
3. 공포일 : '90. 12. 6
4. 내 용

가. 허용되는 시설 및 행위

- 1) 해상공원내 자연환경지구(국민경제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육상 양식 어업시설, 육상수산 종묘시설
 - 수산물의 보관시설
 - 수산물의 건조, 포장등의 가공시설

- 수산물 공동판매장등의 판매시설
- 2) 취락지구(취락지구 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
 - 식품접객업중 대중음식점, 과자점, 다방
 - 여관 및 여인숙(음・면 소재지에 한함)
- 3) 집단시설지구
 - 기존 적법건축물의 개축 및 수직증축
 -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가설 건축물의 설치
 - 대중음식점등 상업시설의 매장면적은 관계 법령에 시설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의 최소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30㎡이하.
- 2) 자연환경지구
 - 해상공원내 육상양식어업 시설 및 육상종묘 시설물의 관리용 건축물은 66㎡이하

나. 규 모

- 1) 취락지구
 - 음・면 소재지 : 층수는 3층이하, 건폐율은 100분의 70이하
 - 기타지역 : 층수는 2층이하,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 ('90. 12. 6)

구 분	높 이		건 폐 율	
	당 초	개 정	당 초	개 정
상업시설	2층이하	3층이하	50%이하	60%이하
숙박시설	2층이하	3층이하	40%이하	50%이하

* 온천지구 및 해안공원(해상공원)내 건축물의 높이 : 5층이하

2.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

구 분	당 초	개 정	비 고
높 이	-	3층이하	
건 폐 율	-	20%이하	

* 온천지구 및 해안공원(해상공원)내 건축물의 높이 : 5%이하

3. 공공시설지구내 건축물

구 분	당 초	개 정	비 고
높 이	2층이하	3층이하	
건 폐 율	20%이하	50%이하	

4. 집단시설지구내 요양원 및 연수원

구 분	당 초	개 정	비 고
높 이	2층이하	3층이하	
건 폐 율	20%이하	50%이하	

※ 집단시설지구내 요양원 및 연수원 이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20% 이하, 높이는 3층이하로 한다.

〈反射鏡 p.32서 계속〉

北韓名山 2천여곳 宣傳조각 범람 상상만해도 엄청난 自然 파괴행위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金剛山의 自然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 지난 10월6일주 노동신문(북조선노동당중앙위 기관지)에 실린 「빛나는 朝鮮의 名山에 忠誠하는 글」이란 題下의 기사를 보면 ▲「노동당창당 45주년을 맞아 金剛山내 金剛萬瀑洞구역에 있는 五仙峰에 『朝鮮의 영광 민족의 자랑 金正日』이란 文字가 크게 부각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이 신문에 의하면 금강산에 조작되어 있는 그 글의 한 字 한 字 크기를 보면 높이 18미터, 너비 13미터라고 한다. 이것 뿐이 아니며 이외도 노동당 江原道黨 林亨求위원장의 인사말의 내용을 보면 금강산과 高城군내 노동당원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끊임없이 계속 발휘하여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중에 친애하는 金正日동지를 칭송하는 글귀가 수없이 많이 조각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선전조각물들이 북한 곳

곳 名山에 새겨져 있으며 金日成주석을 칭송하는 글귀까지 합치면 2천여개가 된다고 한다. 실로 상상만 하여도 엄청난 自然 파괴행위다. ▲이처럼 과잉충성하는 노동당원들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세계 각국의 旅行客들 異口同聲으로 한마디씩 던지는데... ▲북한에서의 個人神格化·世襲체제는 그 경치 좋고 世界的 名山 금강산 경관의 훼손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민족의 財産이며 天然記念物인 금강산만은 地球的인 次元에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충성을 북한 당국자들은 귀를 기울여 지금도 늦지 않으니 빨리 그 해괴망칙한 개인숭배 宣文句를 없애고 本然의 景觀을 살리도록 御命(?)을 내림이 어떨는지... 苦待해 본다. (11.12. 주간五道新聞 「五道메아리」)